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보고서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새로운 형식의 도서전 참여 프로그램인 2015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사업은 ‘한복’을 주제로 하였으며, 도서전의 관람객 뿐만 아니라, 독일 내 한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한국관의 분위기와 성과를 잘 전달하고 있는 ‘교포신문’의 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

2013년을 시작으로 3번째 전시회를 갖는 이는 “한국관”은 제 4관에 있었는데 이 전시관에서는 “한복”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로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그리고 주독일한국문화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재단, 광주광역시, 파주출판도시, 열화당책박물관, 출판도시활판공방, 사단법인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가 협력 후원하였다.

“한복! 점잖고 정숙한 우리 옷! 한복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한복에 관한 여러 책들과 한국전통선비옷 등이 전시되었으며 “한국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체험 및 공연 그리고 강연회 등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한복”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테마들이 있었는데, “다시 라이프치히를 향하여 우리 옷을 입다.”에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이며 열화당 대표인 이기웅이사장, “한국전통복식, 그 점잖음과 정숙함의 미학”에 이경자교수(복식문화연구원원장, 이대명예교수), “옷이 날개다”에 이인범교수(미술평론가, 상명대 교수, 베를린자유대학교교수), “예인의 숨씨를 담은 선비 옷 이야기”에 구혜자침선장(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이 참가 강연을 하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구혜자침선장이 105년 만에 원본 그대로를 재현한 안중근의사의 한복으로 이 한복은 안중근의사 어머니가 아들이 위하여 손수 지은 한복으로 일본에서 사형받았을 때 입었던 한복이었다고 한다.

“옷 한 벌”로 지난 아픔의 역사를 되새겨 보는 것 또한 특별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역사를 흐르게 한 휴머니스트”이 미륵을 찾아서” 라는 테마는 무지의 세계였던 한국을 독일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판소리 공연, 매듭장의 매듭 시연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방문객을 끌기 위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하겠다고 전한 한국팀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2013년에는 “한글”을 2014년에는 “한식”을 그리고 2016년에는 “한옥”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교포신문 923호(2015. 3. 20) 11면, [www.kyoposhinmun.com](http://www.kyoposhinmun.com)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개요

기간	2014년 3월 12일~15일(4일간)
장소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시장 약 3만평(69,000Qm), 도시 전체
참가	42개국 2,263부스
행사	3,200개(강연회, 낭독회 등)
총방문객	251,000명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현황

-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출판, 인쇄, 판화 등의 예술적 생산이 왕성한 라이프치히는 매년 도서전을 통해 책과 문화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출판, 인쇄, 판화 등의 현장 체험과 함께 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세계인이 책을 통해 소통하는 축제다.
- 총 5개의 전시관에 연일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어 책을 통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상업적인 거래를 위한 다른 국제도서전과는 달리 문화의 소통과 발전을 위한 도서전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 라이프치히 도서전 국제관은 매년 40여 개국이 참여하여 책을 중심으로 각국의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관(KOREA-INCCA)에서는 현지 독일인을 위한 안내 및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며, 차츰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 기대된다.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년 1월 2일~6월 30일
사업비	100,000,000원(국고보조금 50,000,000원, 자부담 50,000,000원)
사업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하 국도협)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2014년 4월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계획(안) 마련 및 지원 요청
2014년 5월-2015년 2월	전시 도서 수집
2015년 1월-2월	전시부스 배정
	한국관 전시 기획
	한국관 저널 원고 제작 (필자 이경자, 구혜자, 이인범 등)
	한국관 저널 외국어판 제작을 위한 번역 원고 제작
	한국관 저널, 한국문화의 날 안내지 등 인쇄물 제작
	한국관 부스 전시설치물 제작

2015년 3월	전시 도서 독일로 발송 라이프치히 도서전 참가, 한국관 운영 라이프치히 도서전 및 주변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2015년 4월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보고서 작성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계획(안) 준비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프로그램

도서 전시	엄선한 한복 및 한국문화 관련 도서 200여 종
특별전시 1	〈예인의 숨씨를 담은 선비옷 이야기〉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작품 전시
특별전시 2	〈105년만에 라이프치히에서 다시 만나는, 어머니의 흰 옷〉 구혜자 침선장이 재현한 ‘안중근 선생의 마지막 흰 옷’ 전시 및 퍼포먼스
판소리 공연	조성은, 김평석(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매듭 시연	박선희, 김시재(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한국문화 강연	3월 14일 오후 5시, 4홀(국제관) 내 낭독회장 “우리 문화의 고유함, 내 삶의 등지였던 선교장에서 배운 우리 옷” —이기웅(국도협 이사장,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도시 명예이사장) “어머니의 흰 옷을 다시 짓다”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그림에 나타난 우리 옷의 의미” —이인범(미술평론가, 상명대학교 교수, 베를린자유대학 교환교수)
한국문화의 날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교민, 유학생 등)이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한국문화를 향유하는 축제이자, 홍보 프로그램이며, 독일 내 한국인들이 문화전도사로서 한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게 하는 우리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서전 기간 중 토요일(3월 14일)을 한국문화의 날로 정함. 한국문화 관련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계획 참여자

이기웅(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정동채(전 문화부장관),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송기희(광주MBC 문화사업국장), 최훈(연장통 대표), 임원규(국도협 총무운영위원), 이수정(열화당 기획실장), 조윤희(열화당 편집실장), 정현숙(열화당책박물관 학예실장), 이환규(파주출판단지 조합 상무이사), 전기석(파주출판단지 조합 기획실장), 김성곤(한국문화번역원 원장), 권세훈(한국문화번역원 기획사업본부장), 김홍동(전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이병훈(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 원장), 최두환(시와진실 대표), 최레기네(독문학자), 김영자(독문학자), 송준근(독일 이미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이영래(이미트박사기념사업회 유족대표), 서현강(사진가), 이춘자(한국의맛

연구회 고문), 이미자(한국의맛연구회 회장), 이근형(한국의맛연구회 이사), 이경자(복식문화연구원 원장),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금기숙(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윤지원(한복연구가)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개요

위치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시장 국제전시관(Hall 4) C400
규모	64m <sup>2</sup>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후원	주독일한국문화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박물관협회 파주출판도시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출판도시 활판공방
운영 참여자	이기웅(국도협 이사장)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조윤희(국도협 이사) 최훈(국도협 사무국장) 정진희(온북티브이 이사)
운영 도움	김준영(현지 유학생) 이선미(현지 유학생) 류지연(현지 유학생) 이승주(현지 유학생) 주거환(현지 유학생) 안진환(현지 사업가)
참여자	이인범(미술평론가, 상명대학교 교수, 베를린자유대학 교환교수) 서해성(소설가,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장희운(예인미술 대표, 파주출판단지 조합 이사)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전시 내용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KOREA-INCCA)의 특별 전시 주제는 '한복(韓服)', 즉 한국의 복식문화다.

- 예로부터 한국은 '흰 옷'을 입는 민족이었으며, '점잖음'과 '정숙함'의 복식문화를 이어 오고 있다. 이에 한국관에서는 우리 옷과 장신구가 담긴 영인본 등 고문헌을 비롯한 근현대 도서 200여 종(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출판사 등에서 발행)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선생의 '예인의 솜씨를 담은 선비옷 이야기'를 특별 전시했다.
- 한국문화재단의 협력으로 한복을 입은 관소리 공연, 매듭 시연 및 체험 행사를 4회 이상 진행했다.
- 특히, 한국관 운영기간 중 3월 14일(토요일)을 '한국문화의 날'로 정하고, 독일 내 한국인(교민, 유학생 등)이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에 모여 한국문화를 향유하는 축제를 펼쳤다. 한국문화의 날 마지막에는 독일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한국문화 전도사로서의 자긍심과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라이프치히를 거점으로 한국인의 문화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 안중근이 사형 직전에 입었던 흰 옷,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직접 지어 보낸 흰 옷을 침선장 구혜자 선생이 재현하여 전시했으며, 이를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기웅 이사장이 직접 입고 한국관 및 주변을 순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05년 만에 라이프치히에서 다시 만나는, 어머니의 흰 옷'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백의민족의 혼을 되살리고, 안중근의 동양평화 정신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었다.
- 한국관 전시 소개 자료로 국도협에서 제작, 발행한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 독일어판, 영어판, 한국어판을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한국관의 주제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주독일한국문화원과 문화부에서 발행한 각종 한국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 보급했다.

## 2015 라이프치히 도서관 한국관 운영 현황 및 평가

- 도서전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자 하는 한국관(KOREA-INCCA)의 취지에 적합한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규모가 크고, 책을 통해 문화를 소통하고자 하는 열성 관람객들이 찾는 전통있는 국제도서전이다.
- 예년과 같이 하루 오백 명 이상, 사 일간 삼천여 명이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방문하였다.
- 하루 평균 삼사십여 명의 한국 애호가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전시된 도서들을 살펴보고, 한국관 운영진들과 한국의 문화, 출판, 최근 한반도 현안 등 관심부분을 소통하였다.
- 한글을 배우는 독일인들이 여러차례 한국관을 방문하여 관심부분을 소통하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예찬했다.
-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출판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홍보라는 공공외교적 성격으로 지속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 년도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관의 주제와 관련한 문화 상품, 한류 관련 상품, 우리 문화콘텐츠의 현지 판매를 위해 향후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세번째 운영의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및 이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체험 위주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문화를 주제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15년의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은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의 문화와 교류하는 가치 있는 행사이며, 한국을 대표한 세계 문화 교류 사업으로 향후 문화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 2015년 주제인 "한복(韓服), 점잖고 정숙한 우리 옷-한국 전통 복식, 무슨 옷을 어떻게 지어 입는가?"는 중요무형

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구해자 선생의 작품을 통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는 한국의 복식문화가 독창적이며, 우수한 문화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6년 주제인 ‘한옥’에 대해서도 문헌을 통한 지적 체험과, 다양한 현장 체험이 함께하여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한국문화재단의 협력으로 한국관 내에서 4회 이상 판소리 공연과 매듭 시연 및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판소리는 한국식 낭독회와 같은 것으로, 낭독회가 많은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초점을 맞춘 기획행사였다. 특히 구성진 가락과 함께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판소리는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사전에 라이프치히 조직위원회와 판소리 공연에 대한 내용을 소통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점으로 남았으나, 낮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은 컸다. 이는 한국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페스티벌 행사가 성공적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매듭 시연 및 체험 행사 역시 관람객들로부터 주목받았다.
- 한국문화의 날을 통해 독일 내 한국인(교민, 유학생 등)과 소통하고, 한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일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자유로운 담론)은 행사장 성격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 라이프치히 현지 한국인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 행사였다. 독일 내 한국인들의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문화의 날’과 같은 독일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금년의 문제를 보완하여, 2016년에는 한국관 중요 행사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 및 한국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이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 2015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올해의 책 수상작은 루마니아 작가 미르체아 카르타레스쿠(Mircea Cartarescu)의 삼부작 『오비터(Orbitor)』가 수상했다. 매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도서 중에서 선정하여 수상하는 ‘라이프치히 올해의 책’ 프로그램에 한국의 출판사, 도서 제작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출판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 한국관 운영 사업은 현재까지 세번째 참여로, 아직까지 사전 준비 및 라이프치히 도서전 조직위원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늦게 편성됨에 따라 한국관 운영 사업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관의 각 프로그램을 도서전 측과 소통하여 상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최소한 전년 9월 이전에 프로그램이 확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도서전 측과의 프로그램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예산 편성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 국도협에서는 2013년부터 10년의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5 라이프치히 도서관 한국관 운영 성과

- 유럽 문화의 진입로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기반으로 한국문화가 유럽권 문화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5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과 함께 유럽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과 연계하고 문화 루트를 만들어 감으로써 차후 한국관 운영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럽 문화권 내 한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국관 전시는 문헌 및 영상 자료 등으로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의 아름다운 정신을 각인시키는 문화적 토대를 마

련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단기적인 홍보가 아닌,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문화 교류로 순수한 박람회의 도시 라이프치히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그 효과(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 등등)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속적인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의 필요성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에서는 매년 3월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 우수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바탕이 되고자 한다. 한국관에서는 매년 한국문화와 관련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향후 한국문화를 집대성하고, 연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적 토대가 될 것이다.

화려한 연예 부문의 인기만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를 통해 상업적 성공과 국위선양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세계인의 관심사에 주목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게 국제 교류를 펼쳐가기보다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정리한 문헌의 역사적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출판인쇄 종주국으로서 문헌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든든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은 한국문화를 세계인과 교류하는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계획 2013-2022

- 2013 한글(訓民正音)-한국인들은 무슨 문자로 어떻게 글 쓰는가
- 2014 한식(韓食)-한국 음식, 무슨 재료로 어떻게 조리하는가
- 2015 한복(韓服)-한국 전통복식, 그 원형의 미학과 실제
- 2016 한옥(韓屋)-한국 전통가옥에 깃들인 주거사상, 그리고 참모습
- 2017 한국의 음악(音樂)-한국 음악은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가
- 2018 한국의 영화(映畫)와 연극(演劇)-한국 연극·영화의 역사와 그 결정적 장면들
- 2019 한국의 종이(韓紙)와 서화(書畫)-한지(韓紙)의 우수함, 서화의 아름다움
- 2020 한국의 불상(佛像)과 사찰(寺刹)-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 2021 한국의 도자기(陶瓷器)-고려청자, 조선백자, 그리고 질그릇의 아름다움
- 2022 한국의 고궁(古宮)-한국 궁궐건축의 조영원리와 그 안에 담긴 통치철학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풍경. 곳곳에서 관람객들이 운영자 및 진행 도우미의 설명을 듣거나 한국 핑거푸드와 차를 즐기고 있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풍경. 한복문화를 상징하기 위해 한복을 짓는 각종 옷감과 함께 선비의 초상을 설치하였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풍경.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풍경.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주제 관련 행사로 진행된 매듭 시연 및 체험행사와 이를 지켜보는 관람객들.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작품 전시 <예인의 숨씨를 담은 선비옷 이야기>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도서전의 성격에 맞춰 선비의 옷인 학창의와 도포, 이와 관련한 장신구를 함께 전시했다. 특히, 구혜자 침선장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한복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한복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판소리 공연 리허설 모습. 판소리는 도서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공연으로, 책을 읽는 낭독회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창적인 한국문화이다. 이날 공연은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판소리 공연 모습. 2016년 주제인 한옥을 미리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평상 무대에 앉아 정숙한 가운데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판소리 공연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는 관객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전시 중 큰 주목을 받은, 구혜자 침선장이 재현한 '안중근 선생의 마지막 흰 옷'을 한참동안 바라보는 관람객. 105년 만에 라이프치히에서 선보이는 안중근의 흰 옷은 백의민족의 정신과 함께 평화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였다.



〈105년 만에 라이프치히에서 선보이는 안중근의 흰 옷〉 전시와 함께 국도협 이기웅 이사장이 직접 흰 옷을 입고 한국관 내를 순회하며 설명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구혜자 침선장이 직접 옷을 입혀주면서 옷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에서는 3월 14일(토요일)을 한국문화의 날로 정하고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기웅 이사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침선장 구혜자 선생이 한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앞에서는 매듭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매듭 시연을 관람한 아이에게 매듭 작품을 어깨에 매달아 주기도 했다. 매듭 작품을 선물받은 아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취재하러 온 독일 현지 기자와 한국관 전시에 함께 참여한 서해성, 이인범 선생, 주독일한국문화원 이동준 팀장,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조윤형 이사가 함께 인증근의 흰 옷 앞에서 기념 촬영했다.



한국관 운영기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날인 3월 14일(토요일)을 한국문화의 날로 정하고, 이날 마지막에 독일 내 한국인들과 담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독일 내 한국인과 한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문화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한국문화의 날의 마지막 행사인 한국문화 강연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관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작된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은 독일어, 영어, 한글로 제작되어 국제적인 소통에 적극 활용되었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2016년 한국관 주제인 '한옥'을 미리 체험하는 빛마루 전시대에 펼쳐진 한복 관련 도서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관람객들.



'안중근 선생의 마지막 흰 옷'을 입은 이기웅 이사장과 함께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을 위한 참여자 일행이 기념 촬영했다.

참고자료-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관련 언론 기사 리스트

최익현 기자, 「105년 만에 만난 '안중근의 흰 옷'... 韓服, 서구를 사로잡다 -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어떻게 운영됐나」 『교수신문』, 2015. 3. 17.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순국 105년 만에 되살린 '안중근의 흰 옷」 『중앙일보』, 2015. 3. 13.

김남중 기자, 「안중근 의사 사형 때 입었던 흰 옷 105년 만에 獨 라이프치히서 재현」 『국민일보』, 2015. 3. 11.

「'안중근 흰옷' 라이프치히서 재현」 『문화일보』, 2015. 3. 10.

「105년 만에 라이프치히에서 다시 만나는 '안중근의 흰 옷」 『헤럴드 경제』, 2015. 3. 10.

김용운 기자, 「'안중근 의사 흰옷' 세계 출판인들 만나다 -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에서 전시」 『이데일리』, 2015. 3. 9.

김중배 기자,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서 '안중근의 흰옷' 선보인다 - 국제문화도시교류협, 침선장 구혜자 제작 참여 '한국관' 운영」 『연합뉴스』, 2015. 3. 9.

어수용 기자, 「사형 직전 입은 '안중근 흰 옷' 재현해 공개」 『조선일보』, 2015. 3. 9.

## 사형 직전 입은 '안중근 흰 옷' 재현해 공개

### “백의민족 자존·평화 정신 상징” 12일 라이프치히 도서전 전시

2015년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안중근의 흰 옷' 이 재현된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이기웅)는 오는 12~15일 열리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안중근(1879~1910)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사형당할 때 입었던 흰 옷을 다시 지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서전의 한국관 전시 주제인 '한복'의 대표 행사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구혜자 침선장의 작품이다. 이 이사장은 “안 의사가 입었던 흰 옷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지었던 것으로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면서 “백의민족의 자존, 동양 평화의 정신, 조선 어머니의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전시는 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업. 올해는 '한복'을 주제로, 우리 옷과 장신구에 관한 문헌 200여종을 전시한다.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 '정조대왕 화성능행 반차도' 등을 통해 기록화에 나타난 다양하고 화려한 우리 복식을 보여준다. 또 문헌 전시 외에 한국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제공  
구혜자 침선장이 재현한 안중근 흰 옷. 아래는 뤼순 감옥에서 사형당할 때 입었던 안 의사의 흰 옷.

복식 문화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구혜자 침선장이 제작한 조선 시대 선비옷인 학창의와 도포, 복건, 흑혜 전시가 대표적이다. 또 도서전은 14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의 매듭 시연 및 체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의 판소리 공연, 강연회 등이 함께 열린다. 어수용 기자



사형 당하기 5분 전의 안중근 의사 모습(오른쪽)과 구해자 침선장이 재현한 '안중근의 흰 옷'.

## 순국 105년 만에 되살린 '안중근의 흰 옷' (뤼순서 사형당할 때 입은 도포)

### 침선장 구해자씨 독일서 공개

모친 손수 바느질해 보낸 명주옷  
 동양 평화와 당당한 기개 상징해

안중근(1879~1910)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을 때 입었던 최후의 옷이 부활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막한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참석한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구해자(73)씨는 사형을 기다리는 안 의사를 담은 흑백사진에 근거해 흰 도포를 지어 공개했다. 안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손수 바느질해 아들에게 보낸 명주옷은 백의민족의 혼과 동양평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구해자 침선장은 "105년 전 조마리아 여

사의 마음을 헤아리며 '안중근의 흰 옷'을 되살렸다"고 했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이기웅)가 기획한 한국관은 올해의 주제를 우리 옷, 즉 한복(韓服)으로 정하고 그 핵심 행사로 안중근의 옷 재현을 준비했다. 이기웅 이사장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을 택했던 안 의사의 기개, 그 아들의 당당한 죽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조마리아 여사, 즉 조선 어머니의 강인함이 담겨있는 옷"이라고 설명했다.

구해자 침선장은 안중근의 옷 이외에도 조선시대 선비 옷인 학창의(鶴鶯衣)와 도포(道袍)를 제작해 선비정신이 지닌 '점잖음의 미학'을 드러냈다. 백색 학창의는 1850년대 유물을, 겹도포는 조선조의 무관인 신경유 공이 입었던 17세기 전반 유물을 각각 재현한 것이다. 15일까지.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johanal@joongang.co.kr

### '안중근 흰옷' 라이프치히서 재현

■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 시 입은 흰옷이 재현된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이기웅)는 12일부터 나흘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 한국관 행사의 일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인 침선장 구해자 선생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안중근의 흰옷'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 구해자 선생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흑백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옷을 지었던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선장으로서의 경험과 연륜을 더해 재현한다. 한복을 주제로 한 한국관에는 의궤나 행렬도 영인본 등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는 관계 문헌 200여 종이 전시된다.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2015년 3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4일간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출판·인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유럽 문화의 진입로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기반으로 한국문화가 유럽권 문화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은 문헌 및 영상 자료 등의 전시로 한국문화의 아름다운 정신을 각인시키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단기적인 홍보가 아닌,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문화 교류로, 순수한 박람회의 도시 라이프치히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정리한 문헌의 역사적 힘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갖고 운영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서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의 역량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출판인쇄 종주국으로서 문헌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든든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과 발전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각 주제와 목적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적인 참여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International Culture Cities Exchange Association

413-756,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25(문발동 520-10) 파주출판도시

Gwanginsa-gil 25, Paju-si, Gyeonggi-do, Korea

t. 031 955 7030 f. 031 955 7010

iccea.egloos.com